

총여 출범식

민족조선 11대 자주적 총여학생회 출범식 기획안

의의, 목표

1. 학우대중 속에서 한총련을 나의 조직으로 공분을 모아내자.
2. 자주학원 건설의 기치 드높이 민족조선의 활로를 개척하자.
3. 여학일꾼 스스로 여학생회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단련의 공간이 되도록 하자.
4. 2만학우와 함께하는 총여학생회 출범식으로 대중적인 공간이 되도록 하자.

기치

- 자주적 삶을 짐향하는 세상의 절반 여성이야기

중심적내용

- 한총련 10년의 역사 속에서 학우들과 함께하는 한총련을 각인시키고 나아가 한총련 사수의 의지를 담아내자.
- 양심수는 왜 생겨나는가 그리고, 학원으로의 정권의 사상이데올로기 공세에 대한 부당성과 양심수 석방을 학우대중들과 함께 이야기하자.
- 학교의 주인은 학우라는 믿음으로 자주학원 건설과 교재투에 대한 중간총화를 승리적으로 담아내자.
- 반미 자주화에 대한 의식들을 고취시키고 IMF의 본질과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주한미군 범죄의 실상 그리고, 생활문화 운동 속에서 실천적으로 담아내자.
-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내고 일본의 제국주의 부활음모분쇄를 학우들과 대중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자.
- 여성문제를 풀어나가는 올바른 모습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자주적인 인간상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심어내자.
- 자본주의와 우리사회의 성문화와의 관계를 규명해보고 대학내 성문화의 현주소를 진단해보자.
- 총여학생회 1년 사업에 대한 공유와 여학생회에 대한 인식을 대중적으로 높여나가자.

기획사업

1. 생활문화운동

- ▶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에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미국의 제국주의 문화들을 생각해보고 학우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실천꺼리들로 캠페인을 벌인다.
커피, 콜라 안마시기운동, 우리것 살리기운동등...
- ▷ 방도로는 이동총여를 미래앞에 개설해 빌클린턴에게 보내는 항의엽서 쓰기, 우리상표 달아주기등 진행. 대대적인 캠페인에 대한 선전전(이스트팩의 뜻은?, 금모으기 운동과 타이타닉과의 관계, 커피, 콜라 안마시기, 우리것 살리기등), 4월 3일, 6일 이틀간 진행.

2. 2만학우 의견개진 운동

- ▶ 교재투에 대한 학우들의 의식을 알아보고 승리적인 관점을 심어주기, 한총련에 대한 새내기들의 생각 그리고 여학생회에 대한 인식을 높여내는 공간이 된다.

▷방도로는 각 단과대학 여학생회 주체로 학생회관 주변에서 우리차 시음회를 열어 학우들을 직접 만나대면서 설문지조사를 진행하고 교양사업을 진행하며 학우들의 의식흐름을 을 끈게 파악하고 다잡아낸다. 권장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

3. 과 학생회로 공문띄우기

▶총여학생회 출범식에 대한 공유와 2만학우 속에서 치루어내는 출범식이 되도록 단과대학 운영위 속에서 제출하거나 직접 과 회장님들을 만나낸다. 또한 함께할수 있는 방도로 자주학원 건설의 의지를 담아 학접기를 진행하여 그 결과물로 조형물을 만들어 선보인다.

4. 여성관련 글 공모전

▶2만학우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여성문제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잡아나갈 수 있도록 여성문제의 범위나 여성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볼수 있는 공간이다.

▷장르-시, 수필, 감상문등...

주제-어머니, 가족, 형제, 이성관, 사랑등 여성 혹은 성에 관련된 모든 것

분량-산문인 경우 200자 원고지 25매 이상, 시는 제한 없음

대상-민족조선 2만 학우면 누구나

기간-4월 8일부터 5월 8일 까지

발표-5월 중순(추후통보)

기타-심사나 발표방도는 추후 제출

상금-자주상(최우수상 1명):15만원, 민주상(우수상 2명):각각 10만원 씩, 입상작 5명:도서 상품권 증정

5. 사랑의 엽서나누기

▶서로를 챙기고 정을 나누어 가는 모습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요즘 이기심보다는 사랑으로 사람에 대한 예의와 여유를 간직하며 살아가는 민족조선인들이 되고자 사랑의 엽서나누기 캠페인을 벌인다. 시작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매월 첫주 월요일 아침 진행될 이 캠페인을 출범식을 맞으며 첫 시작을 하는 것이다. 4월 6일 진행.

선전의 거리(4월 6일-10일, 민주로에서 후문까지)

1. 반미의 거리

▶주한미군범죄와 한미 행정협정과의 관계

기지촌 여성은 별레가 아니다!(기지촌 여성의 죽음과 기지촌 활동)

IMF협상의 본질은?

생활문화운동에 대하여

2. 일본군 위안부의 거리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올바른 해결은?

300회차 수요집회 사진전

할머니들의 사진전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 하려면!(후원회, 봉사활동 등에 대하여)

3. 한총련의 거리

▶한총련 1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한총련은 나의사랑! 나의조직!

전직 대통령 김영삼이 사법처리 되어야할 몇가지 이유

전여대협이란?

4. 양심수의 거리

▶ 양심수는 어떻게 생겨나는가?

양심수의 인권은 어떻게 보장받아야하나?

(교도소 내 폭행사건, 고애순씨 태아사산사건, 목포대 여학우 청원 기각)

우리대학 구속자 현황 및 사진전

5. 여성의 거리

▶ IMF와 여성(여성고용 안정화에 대하여..)

성폭력은 범죄인가?

반쪽이 그림전

나의 성의식 진단해 보기

6. 기타

▶ 각 단과대학 여학생회 소개

98년 총여학생회 공약집 전시

총여학생회에 바란다-의견란

98' 총여학생회 해오름 한마당(4월 7일 5시 1.8극장)

5시 1.8극장 집결

길놀이

식전문화행사(노래, 율동 배우기등)

1부 본식

민중의례

축사(총회장, 여성단체 연합, 학교측)

영상물

율동공연

역대총여회장 인사

각 단과대학 여회장 응립식

총여회장 응립

깃발이양

고사

2부 축하공연

동아리 공연

인식극(여성문제 관련)

문학예술학생연합 공연

외부 초청 공연

(구체적 내용은 추후제출)

조직화 방도

- 단대 학생회 속에서 출범식에 대한 기조와 내용 공유, 교양작업 진행
- 단대 운영위 속에서 출범식에 대한 기조와 내용 공유, 공문 보내기, 학접기 진행
- 각 단역 주체로 우리차 시음회 속에서 의견개선운동진행
- 화장실 신문을 통해 총여출범식 선전과 우리상표 달아주기 대대적 선전
- 과 여부 모임을 통해 출범식 조직화 이동총여 결합, 과 여부 소식지 활용하기, 확대운영위 준비, 남녀대협 총회 조직화 작업
- 선전단과 문예단으로 새내기 및 과 여부 조직화

역할분담

- 각 단대 주체-여회장님이 각 단대 주체로 간부교양, 과학생회 교양, 과 여부, 새내기 조직화
- 선전단-여부회장님들과 간부들 중심으로 선전단 결합, 설문지작성, 선전의 거리 준비
- 과여부장-이동총여 속에서 생활문화운동 진행, 각 단역 우리차 시음회 결합
- 문예단-새내기 중심으로 인식극 준비

선전방도

- 포스터 제작, 유인물 제작, 설문지 제작
- 조대 신문사와 교육 방송국에 공문 띄우기
- 프랑, 화장실신문
- 자보선전(출범식 기획사업 선전, 생활문화 캠페인에 대하여 특화)

세상을 향한 새로운 몸짓! 10년 따라잡기

민족조선 11대 자주적 총여학생회

수
여성이여 비상하라 세상의 주인으로

98 총여학생회 출범식 기획안

- ◆ 일시 : 반미자주화의 해 3월 26일 목요일 5시
- ◆ 장소 : 구 본부 뒤 특설무대

안녕하세요.

2만의 당당한 벗 14대 총여학생회입니다.

33만평 용봉굴 곳곳에 봄빛이 가득합니다. 대강당 앞 매화향기도 짙고, 백도원 목련꽃도 노루도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봄날. 우리에게 가슴아픈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바쁘게 도서관으로 향하는 학우들의 무거운 발걸음, 가슴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동기이기 보다는 취업 경쟁 상대로 바라봐지고...

IMF 경제난 극복의 대안이라고 나온 것은 노동가족 다죽이는 정리애고제

그 속에서 정리애고 0순위가 되어버린 우리 여성 노동자들

그리고 정권과 언론은 건국 이래 가장 많은 특사라 운운하며 언론으로 떠들어대지만 여전히 학교로 돌아오지 못한 재 양심수라는 이름으로 감옥안에 있는 우리 동지들...

윤금이, 이기순, 허주연 누이 ...갈수록 잔악해지는 미군범죄들

이것이 우리 조국의 현실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남한의 현실입니다.

이 조국의 현실앞에 우리는 봄날의 낭만만을 꿈꾸고 있을 수는 없는 정준입니다.

열여덟의 영생을 찾는 정준시절

이제 오월 정신이 살아 숨쉬는 민족 전대의 정준담게 시작합니다.

바로 이곳 총여학생회 출범식에서...

출범식의 의의와 목표

총여학생회를 출범식이라는 대중적인 공간에서 2만학우에게 알려낸다.

한총련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한 의식화의 자리이다.

새내기들을 총여학생회 두리로 묶어낸다.

여학일꾼들의 결의와 활동력들을 높여낸다.

총여학생회 일년을 결의하는 자리이다.

전여대협과 남여대협에 대해 알려내는 자리이다.

출범식 본 행사

- 구 본부 뒤 특설 무대
- 5시 시작

1부

길놀이 - 전풍연 5시 봉지 주변
 각 각 단대에서 깃발들고 모이기

문예공연 - 중노단
 새내기 문예단 올동

출범 축하사 - 본부, 총학생회장, 총예협장

집체극 - 학문연 (한총련 운동에 관한 것)

틈틈히 문예단 올동

마지막 올동배우기로 정리

2부

학우들의 축하사 (미리 준비.녹음한 음성)

본식 시작 선포

민중의례

여성노동자 축하사, 역대 초여회장 인사

이동마이크, 인식극 (새내기 인식극단)

과여발특위 출범 (간단한 노래)

단여 회장 부회장 인사 (간단한 공연)

총여학생회 인사
 (봉지 배 띄우기)

대동놀이 - 국악과

구체적 논의 중

기획 거리

한총련 거리 - 자주 민주 통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것

양심수에 관한 것

대학 문화 정화와 관련한 것 (EASTPAK 안매기, 영어 쓰여진 옷 안입기)

전여대협과 남여대협이란

선전단에서 고민 주도적으로 진행

부대 행사

일본군 위안부 후원회원 모집

해방이 후 반세기가 지났는데도 우리 족의 자주의 역사를 짓밟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제는 우리 민족전대 2만학우가 할머니들의 후원이 되어 투쟁에 나섭니다.

- 할머니들께 엽서 쓰기, 후원회 회보 배포, 뺏지 판매, 손도장 그림 만들기 등등 고민 중

대학문화 정화 운동

우리 민족 전대는 항상 시대 정신이 살아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살아왔지만 우리 대학도 이제는 자본의 힘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곳 대학에서부터 올바른 민족문화를 만들어가 봅시다. 총여학생회 대학문화부와 새내기가 함께 고민합니다.

- 생활 문화 혁신 운동으로 우리옷 판매나 전시, 이스트 백 안매기, 영어 쓰여진 옷 안입기등

미국 바로 알기 - 성조기 밝기 (바닥그림 그려서 밝고 지나가기, 학우들과 함께 그리기 - 수요일 이동총여 때)

봉지에 90개 과 희망배 띄우기 - 각 과에서 학우들과 함께 만들어 온 과염원 배

2부 대동놀이 이전에

각 과와 단대에 제안서 미리 드리겠습니다.

여성이여 비상하라 세상의 주인으로

14대 총여학생회

우리, 자주의 날개를 펴자!!

98 총여학생회 출범식에 민족전대 2만학우를 초대합니다!

3월이라 과 새내기들과 새로 복학한 선배님들과 하나되는 과학생회를 만들기 위해 이것 저것 알려주려 하시고, 야유회나 수련회를 계획하시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14대 총여학생회 역시 민족전대의 주춧돌 과 학우들과 함께 하는 한해를 만들어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의 자리로 자주의 날개를 펴기위한 힘찬 몸짓 14대 총여학생회 출범식에 2만학우와 함께 하고자 합니다.

3월 26일 목요일 5시

봉지 주변 특설무대에서 열리는 총여학생회 출범식 꼭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오실 때는, 기획안에 나와있듯이, 과 학우들과 함께 만든 과소망배를 가지고 오셔서 봉지에 띄웠으면 좋겠습니다,

97개과 소망배속에 민족전대의 희망이 보이리라 생각합니다.

97개과 학우들과 과 깃발, 그리고 과 희망배가 함께 하는 총여학생회 출범식을 기대해 봅니다.

여성이여 비상하라 세상의 주인으로
민족 전대 14대 총여학생회

민족전대 2만학우가 일본군위안부 할머님의 후원인이 됩니다.

개방이후 반세기가 지났는데도 우리 민족의 자주의 역사를 짓밟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이제는 민족전대 2만 학우가 후원인이 됩니다. 얼마 전 돌아가셨던 김학순할머님의 첫 증언으로 우리 사회에서 부각되기 시작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의 왜곡과 핑피, 은폐음모 속에서 그리고 한국 정부의 방관적 태도로 아직도 해결된 것 하나 없는 상태입니다.

매주 수요일이면 우리 할머님들의 외로운 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투경찰이 지키고 있는 일본대사관 앞에서 벌써 6년째 역사의 진실을 촉구하는 수요집회를 해오고 계시는 할머님들의 든직한 후원인이 됩시다.

더 이상 할머님들만의 문제만도 여성만의 문제도 아닌 민족의 자주권 회복의 문제인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 투쟁을 2만학우가 함께 해 나갑시다.

김수진 총여회장을 주주로 후원회원을 모집합니다.

회비는 한 학기당 5000원

주기적으로 회보 발송

할머님들이 계시는 '나눔의 집' 방문

후원회 결성 이후 전제 회원이 모이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일본정부는 기만적인 민간 위조기금 철회하고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실시하라!!

2만학우 후원회 결성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하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로 민족 자주권 회복하자 !!

14대 총여학생회

일본군 위안부 후원회 결성준비단

일본군 위안부 후원회 가입 원서

소 속
성 명
주 소
연락처

본인 (단체)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할머니들의 투쟁에 찬동하며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돕기위한 후원회에 가입합니다.

이에 한 학기(6개월) 당 5,000원을 민족전남대학교 총여학생회 산하 일본군 위안부 후원회 구좌로 보내드릴 것을 약정합니다.

199 년 월 일
인

민족 전남대학교 총여학생회
일본군 위안부 후원회

단대 여학생회, 과 여학생부(회) 출범식 선전내용

-출범식 일정선전을 진행해야겠다.

-공모전선전

-생활문화운동선전

-1단위 1개 이상 프랑쓰기(여학단위내용, 미색에 남색으로 일괄적 통일)

-항의엽서 해석 설명과 함께 엽서쓰기 운동 선전

*일정선전 초안

자주적 삶을 지향하는 세상의 절반 여성이야기

'98 총여학생회 출범식(4월 1일-7일, 백악골 곳곳에서)

자주적 삶을 지향하는 세상의 절반 여성이야기

기획사업

-생활문화운동(우리것 지키기):4월 3일, 6일 12시-6시, 미대앞 이동총여

-의견개선운동:각 단과대학 여학생회, 3월 30일-4월 10일(우리차시음회, 설문작업)

-여성관련 글 공모전

-사랑의 엽서 나누기 운동:6일 오전(후문과 미대앞)

기획선전

-반미의 거리

-일본군 위안부의 거리

-한총련의거리

-양심수의 거리 2개소, 지하소 (인원각)

-여성의 거리

-총여학생회 일년나기

해오름 한마당

-4월 7일 5시, 1.8극장

문화행사, 인식극, 동아리 공연, 고사, 총여회장님 응립등

*항의엽서 선전

주한미군 범죄 하루 평균 2건, 출생은 우연, 사랑은 선택, 살인은 직업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주한미군의 오만방자한 태도는 급기야 귀찮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행각을 벌였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맺은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은 오히려 그런 주한미군을 감싸고 있으며 그걸 미끼로 미국은 자국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한국인에 대한 범죄에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부터 이런 불평등한 모습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정부의 무책임한 모습과 미국에 항의를 하며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에게 보내는 항의엽서쓰기를 적극적으로 동참합시다.

항의엽서

친애하는 빌 클린턴 대통령께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군대가 매년 2000건 이상의 범죄를 일으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윤금이(27세)는 1992년 10월 28일 잔인하게 살해당했고 가장 최근에는 허주연(22세)가 주한미군 제복에 의해 불에 타 죽는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신은 미국군대의 최고 통치자로서 주한미군 범죄행위를 없애기 위해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으로부터 미군을 철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민족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유지시키기 위해 그들이 정당한 움직임을 보일 때 까지 우리 한국인은 계속 싸워나갈 것입니다.

(자보에다 항의엽서도 같이 붙여서 과실이나 강당에 선전합시다.)

*프랑스선전 구호

- 일본군 위안부문제 올바른 해결로 민족자주권 회복하자!
- 일본군 위안부문제 도리에 어긋나는 국민기금 반대한다. 일본은 사죄, 배상하라!
- 우리누이 다 죽이는 주한미군 철수하라!
- 미군범죄 하루평균 2건, IMF 경제침략 미국놈들 몰아내자!
- 1.8의 후예답게 교재투 승리로 자주학원 건설하자!
- 나의 사랑! 나의조직! 한총련을 사수하자!
- 기타 등등...

*생활문화운동, 공모전 따로 제출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사람들-민주광장(주장과 토론) (go SCUGO)』 777번

제 목:[필독] <EASTPAK> 의 뜻이 뭔지 아세요?

올린이:왕미 (김왕미) 98/02/09 05:08 읽음:468 관련자료 없음

저도 얼마전에 유머란에서 봐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친구랑 온갖 영어사전을 다 뒤져서 알게 된 그 뜻은 바로

'동양떨시', '동양배척' 이었습니다.

이스트팩은 미국사람들이 한국상표인줄 알 정도로 미국에서는 거의 알려지

지 않은 망해가는 상표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가방이라고 칭할 정도로

너도 나도 신났다고 메고 다니죠. 또 " 동양배척"이라고 크게 써 붙이고..

이스트팩은 그 뜻을 가슴에 받아안고 완전 미국생산을 원칙으로 한답니다.

100% 미국원단에 100% 미국 노동자로 완성되는 이스트 팩,,,

정말 그 새끼들은 죽어라 패놓고도 몇 대 더 패 놔야 합니다.

이제 우리 이스트팩 절대 메지 맙시다. 또 그런 학우들에게 이 사실을 널리

알려 아무리 어려운 IMF 시대라도 과감히 버리도록 합시다.

아님 << WESTPAK >> 으로 바꿔 달게 합시다.

왜 태극기 달린 가방은 안 나오는 거지?

무심코맨 이스트팩 양키새끼 기살린다.

이스트팩맨 양키새끼 죽어라고 쥐패주자!!

『찬우물-문화영역 (go CW)』 1988번

제 목:[사이다와 콜라] 칠성사이다 전쟁 선포!

올린이:함께살기(최종규) 98/03/16 10:37 읽음: 48 관련자료 없음

"콜라를 마실 것인가?
사이다를 마실 것인가?"

코카콜라와 펩시콜라가 우리나라 마실거리 저자(음료시장)에 80미리 '서비스'를 한다며 먼저 공세를 해댔다. 우리 마실거리인 식혜와 수정과가 돌풍을 몰아치며 우리 입맛에 맞는 마실거리 저자를 열자 그만큼 콜라는 마실거리 저자에서 '점유률'이 줄어들 수밖에.

이에 더불어 펩시콜라가 '펩시맨' 광고로 코카콜라 점유율을 야금야금 파고들자 코카콜라는 '350미리' 깡통을 내놓아 펩시콜라와 한 판을 벌이려 했다.

그러나, 펩시와만 붙는 일이 아니다. 펩시와 한 판 힘겨루기를 한다 하며 우리 마실거리 저자에서 식혜나 수정과, 사이다 같은 마실거리가 사라지도록 하려는 음모이다.

이미 '쌀 개방' 음모에서도 드러났듯, 싼값으로 우리 저자를 공략해 들어와 저자(시장)를 모두(완전히) 휩쓴(장악한) 뒤에 다시 값을 원래대로 올리고 그다음에는 제 마음대로 올려서 받아먹는 수법이다.

이에 칠성사이다는 회사 '존폐 위기'를 느낄 수밖에. 드디어 칠성사이다도 코카콜라와 펩시콜라에 맞설 대책을 세우다가 '공세 광고'를 내보낸다.

바로 "콜라를 마실 것인가? 사이다를 마실 것인가?" 하는 광고다.

이 광고에는 세 가지를 내걸었다.

1. 노-카페인 (no-caffeine)
- 칠성사이다에는 카페인이 없습니다.
2. 노-컬러 (no-color)

- 칠성사이다에는 색소도 없습니다.

3. 노-로열티 (no-royalty)

- 그리고, 칠성사이다는 단 한푼의 로열티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맑고 깨끗한 맛, 칠성사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는 칠성사이다가 있습니다"라고 끝맺으며 민족성을 일깨우는 광고를 실었다. 더불어, 콜라에는 카페인과 색소가 가득하며 콜라를 사마실 때마다 '로열티'를 낸다는 사실도 우리들에게 일깨운다.

아는 사람은 다 알기도 하지만, 알아도 그냥 마시는 '콜라'였다. 칠성사이다 광고 반격은 3월 16일 <조선>에 전면광고를 실으며 열었다.

앞으로 사이다와 콜라, 콜라와 사이다 힘겨루기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어질지는 두고볼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생각할 일은, 칠성사이다에서 내건 세 가지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점이다. 콜라를 마실 때 우리는 '카페인'과 '색소'를 마시며 비싼 로열티를 미국에 넘겨주고, 350밀리라며 '저가공세'를 피부울 때 우리 마실거리를 등 돌리고 콜라만 즐겨 마셔서 우리 마실거리가 사라지면 우리는 싫어도 콜라만을 마실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지금처럼 국제통화기금 체제 아래에 들어서서야 비로소 이러한 문제제기가 나왔다는 일이 안타깝고, 수세에 몰려 회사 존폐 위기에 몰린 칠성사이다가 막판 공세로 피부은 광고라 아쉽기도 하다.

그러나, 칠성사이다 광고를 발판으로 우리 마실거리 저자를 우리들이 다시금 깨닫고 올곧게 바라볼 수 있다면, 헛된 일은 아니라고 본다.

더불어, "콜라를 마실 것인가? 사이다를 마실 것인가?"를 뛰어넘어 "우리 쌀로 밥을 지어 먹겠는가? 피자를 즐겨 사먹어 우리 농촌을 온통 무너뜨리는데 앞장서겠는가?" 하는 문제까지도 나아가야겠다.

먹을거리 저자를 바깥나라에게 빼앗기는 일은 무척 위험한 일이다. 이러한 위기 의식을 이제는 좀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